



한자의 탄생
탕누어 지음

한자로 본 인류 진화 과정

한자는 외국어인가? 우리말인가? 과연 한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만 최고의 문화비평가이자 전방위 학자이며 작가인 탕누어가 한자의 태동과 역사를 추적한다. 그가 펴낸 '한자의 탄생'은 인류 사유의 시원과 진화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가 보는 중국 역사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궤적을 보인다. 중국은 천혜의 요새에 의해 자연적으로 구역을 형성되기도 하고, 생활상과도 지역마다 달랐다. 여기에 무수한 분열이 세대마다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의 국가로 집약되는, 유럽의 역사 진로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단일한 문자 시스템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저자는 또한 한자에 담긴 문화 유전자를 인문학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김영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 대 시장
허먼 M 슈워츠 지음

지구화는 16세기 현상

일반적으로 지구화는 1970년대에 시작된 지구적 시장 압박으로 이해된다. 과연 지구화는 20세기에 비롯된 현대적 사건일까?

미국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 허먼 슈워츠는 '국가 대 시장'에서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그에 따르면 지구화는 16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며 오늘날 목도하는 현상은 2차 대전 이전의 세계경제에 존재하던 패턴의 재출현이다.

저자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구화의 역사적 지리적 범위, 즉 지구화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다룬다. 이는 국가와 시장이 서로 의존하고 공생해 온 역사이자, 국가 대 시장이 긴장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이다. 저자는 16세기 유럽의 해상무역에서부터 19세기 서유럽의 산업화, 20세기 초 영국 헤게모니의 붕괴, 미국 패권과 위기, 중국의 부상 등 일련의 상황까지 아우른다.

〈책세상·2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친구와 차 마시고 봉사하고... '사회적 뇌' 진화한다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매튜 D. 리버먼 지음



20세기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라고.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다. 식욕, 성욕 등 생리적인 본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사회적 욕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면서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고 존중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만약 그런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생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엄청난 자산과 뛰어난 능력이 다른 이들과 교감하지 않는 삶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인간의 고통과 쾌락은 물리적인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이보다 '연결'이라는 사회적 세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낯선 이의 무례하고 오만한 눈빛이 날카로운 비수로 느껴지고, 그와 달리 부드러운 눈빛은 안정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사회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캘리포니아대 심리학

타인과 관계 유지 위해 설계 직장·교육현장 활용법 소개

매튜 D. 리버먼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사회적 뇌'에서 펼친다.

그는 인간의 뇌는 생각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도 설계되었다고 본다.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는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간의 뇌가 사회적 세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정교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 능력은 인류가 종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인간의 뇌가(몸에 비해) 가장 많이 진화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뇌를 활용할 것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친구와 커피 마시기, 이웃과 대화하기, 자원봉사 참여하기 등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삶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일이 여타의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회사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뇌'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적인 것'이 통합될 때 참여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스킵 모델(scare Model)을 제시하는데 지위(status), 확실성(certainty), 자율성(autonomy), 관계(relatedness), 공정성(fairness)을 뜻한다.

이 같은 비금전적 동인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가 된다. 예컨대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많은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집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잘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다. 사람들이 지위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교육 현장에서도 '사회적 뇌'를 활용하라고 한다. 아이들의 학습 흥미는 '사회적 인정'과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소속감이 증대돼 학습 성취도가 상승한다는 논리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아 니 더 정확히 말해 사회적 동물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은 경제의 기본 동향과 기업들의 실적 못지않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대심리나 공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심리학, 심경과학, 그리고 그 밖의 학문들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개인의 차원에서든 사회의 차원에서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와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시공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실 같은 꿈'에서 인간 세상이란



마지막 정육점
김도연 지음

유패된 개인과 삶의 지리멸렬함을 토대로 글을 써왔던 김도연 작가가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마지막 정육점'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제목의 작품은 '현실 같은 꿈'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소설에서 저자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변주한다. 이

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이면을 응시한다. 저자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세상 끝의 정육점인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소설은 결혼식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한 도식과 옥자의 이야기다. 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약 반세기에 걸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넘나든다.(그것도 11일 간의 환상적인 신혼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가 살았던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어린 시절 풍문으로 들었던 역사의 비극적 현장을 생생히 체험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제대로 죽지 못하고 시공간을 떠돌며 다니며 낯선 장면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더러 영혼

상태인 도식과 옥자는 여행 도중 만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사건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 장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작가는 80년대 말 디스코텍과 군부독재 시절 대공분실을 한데 겹쳐놓기도 한다. 이는 평화로워 보이는 지금-여기의 삶이 비극에 덧칠한 눈가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내재한다. 도식과 옥자 부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제대로 된 죽음을 살아야 한다는 역설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된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같이 살고 함께 만드는 '老協창조경제'



노년!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홍성열·손복수 지음

혼자 가는 노년의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같이 살고 같이 놀며 같이 공부하며 같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노협창조경제'는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다'가 출간됐다. 책은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후손의 희생을 담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노협창조경제'다. 저자인 '老-how(노하우)' 연구소의 홍성열 소장과 손복수 고문은 기나긴 노년의 삶을 홀로 고달프게 각개전투하지 말고, 동료들과 같이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업을 창조하며 같이 살자는 의미로 '노협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노년을 살아가는 삶의 기반으로 제시한다.

고령화 시대의 솔루션 노협창조경제를 다른 '노년!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